

“고유가 지원금 특수 잡아라”... 편의점 ‘선점 전쟁’

27일부터 풀려... 업계 대대적인 할인 행사 나서 CU 2500여 종 세일... 대용량·초특가 상품 전면에 GS25·세븐일레븐은 생필품·신선식품에 집중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일제히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CU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0일간 통합 할인 행사를 연다. 월 통합 행사 상품 2400여 종에 라면, 즉석밥, 주류, 스낵, 티슈, 음료, 정육, 과일 등 50여 종을 추가해 총 2500여 종 규모로 준비했다.

고유가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번들형 대용량 상품과 초특가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수입 맥주 6입 번들은 최대 56% 할인하고, 카스-테라 500ml 24입과 참이슬 20입 번들도 20% 이상 낮춘 가격으로 선보인

다. 컵라면 6입 번들은 6000원대부터, 봉지면 주요 상품은 최대 33% 할인한다.

냉동 대패 삼겹살 800g은 1만1900원, 양념 목심 구이와 마늘 제육볶음 600g은 각각 8600원, 8400원에 내놓는다. 특란 10입은 3600원으로 유사 상품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 여기에 30여 종 상품에는 구매액이 클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 ‘다다의 선’ 혜택을 적용해 1만 원 이상 10%, 2만 원 이상은 멤버십 QR 스캔 시 25% 할인한다.

GS25는 지원금 첫 지급일인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성비 자체 브랜드(PB)인 ‘혜자로운’과 ‘리얼프라이스’ 17종을 25% 할인한다. 대상은 즉석밥, 조미김, 두부, 콩나물, 소시지, 화장지, 우유, 계란, 삼겹살 등



편의점 3사 고유가 대응 할인 경쟁

-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소요 예산 6조1000억 원
- 4월 27일 지급 시작 · 규모 1인당 10만~60만 원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유가 등 국민 부담 경감

CU	GS25	7-ELEVEN
4월 21~5월 31일	4월 27일~5월 31일	5월 한 달
·수입맥주 6입 최대 56% 할인	·즉석밥·김 두부 우유 등 25% 할인	·목초란 34% 할인
·카스-테라 24입 20% 할인	·콩나물 300g 750원	·무항생제 계란 2+1
·컵라면 6입 6000원대부터	·백미밥 6입 4500원	·두부·콩나물 1+1
·대패삼겹살 800g 1만1900원	·우유 2입 3300원	·육류 반값
·다다의 선 최대 25% 할인	·계란 15입 3900원	·참외 1+1
		·음료 200종 할인
		·맥주 최대 50% 할인

다다의 선 최대 25% 할인 | 초특가세일 48종 1+1 행사 | 카카오페이 추가 20% 할인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일제히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BGF리테일

구매 빈도가 높은 생활 필수품이다. 대표 상품은 콩나물 300g 750원, 백미밥 210g 6입 4500원, 우유 900ml 2입 3300원, 계란 15입 3900원 등이다. GS25는 지난해 소비 쿠폰 지급 이후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계란 매출이 64.5%,

과일 47.2%, 채소 43%, 양곡 41.9% 증가한 점을 반영해 신선 식품 중심 품목을 강화했다. 또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19일간 라면, 스낵, 아이스크림 등 46종을 대상으로 ‘초특가세일’을 진행한다. 왕뚜껑 6입 기호 팩

1+1, 프링글스 1+1, 메로나 1+1, 파워에이드와 펄스콜라 1+1, 햇반류 1+1+2 등 일상 소비재 중심 행사를 앞세웠다. 5월에는 2500여 종 이상 상품으로 할인 범위를 넓혀 실속 소비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5월 한 달간 생필품을 중

심으로 총 2000여 종에 대한 ‘고유가 생활안정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7~10월 소비 쿠폰 발급 기간의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즉석밥, 껌, 채소, 계란, 아이스크림, 음료 등 수요가 크게 늘었던 품목을 재편성했다.

신선 식품에서는 계란, 두부, 콩나물 등 18종을 할인 판매한다. 동물 복지 목초란 10입은 약 34% 할인하고, 무항생제 1등급 계란 10입은 2+1로 선보인다. 두부 5종과 콩나물 상품도 1+1 이상이다.

육류는 롯데마트 공동 소싱 상품 2종을 반값에 판매하고, 참외 2입은 1+1으로 운영한다. 음료는 200여 종 할인, 맥주는 23종 최대 50% 할인, 막걸리 12종과 소주 4종은 최대 38% 할인한다. 나뚜루 아이스크림 7종은 2개 구매 시 40% 할인하고, 오뚜기 큰밥 4입 1+1, 크리넥스 30롤은 약 28% 할인한다. 일부 23종 상품은 5월 15일까지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시 추가 20% 할인도 제공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싸고 믿을 수 있게”... 대형마트, 초저가 PB 승부수

식품 넘어 가전까지 초저가 PB 전면 확대 움직임 이마트 가전·롯데 식품·홈플러스 생활용품 특화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유통업계의 초저가 경쟁이 대형마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품질을 먼저 보고 가격을 따졌다면 최근에는 일정 수준의 품질이 확보되면 더싼 상품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유통업체들도 상품 기획과 조달 구조를 함께 손보며 대응에 나서서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들은 식품은 물론 생활용품과 소형 가전까지 초저가 상품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단순 할인 행사 차원을 넘어 자체 브랜드(PB)를 앞세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준 가격 자체를 낮추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마트는 그룹 차원의 공동 기획을 통해 2500원짜리 ‘숨겨진 통식빵’을 선보였다.

연구소와 제조, 유통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원가 구조를 재설계했고, 유산균 발효 공법을 적용해 품질 경쟁력도 확보했다. 롯데마트는 29일까지 ‘PB 페스타’를 열고 ‘오늘좋은 데일리 우유(1L)’를 1880원에, 일부 과자를 500원대에 판매하는 등 먹거리와 생활품 중심 할인 폭을 키우고 있다. 실제 ‘오늘좋은’과 ‘요리하다’를 합친 롯데마트 PB 매출은 지난해 11.4% 증가했고, 올해도 1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었다.

이마트는 초저가 PB 전략을 비식품과 소형 가전으로 넓히고 있다. 자체 브랜드 ‘오케이 프라이스’를 통해 스타다리미, 드라이어, 체지방계 등을 4980원에 판매하고, 유선 청소기와 달걀찜기 등도 1만 원 안팎 가격에 내놓았다. 특히 4980원 스타다리미는 중국 공장을

대형마트 3사 초저가 제품 라인업 (단위: 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드라이어 4980	통식빵 2500	태국산 산선란 30구 5890
스타다리미 4980	화장품 4950	국산콩 두부 3490
체지방계 4980	우유(1L) 1880	서해안 꽃게(100g) 990
유선청소기 9980	피넛버터 2종 4990	아메리카노(500ml) 1000

자료:가사

직접 발굴해 생산한 상품으로,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천 대가 팔릴 만큼 반응을 얻고 있다. 감자튀김 등 해외 직소식 상품도 확대하면서 단순 초저가가 아니라 품질 검증은 거친 상품으로 PB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흐름은 이마트에브리데이의 ‘5K 프라이스’ 확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체감형 할인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행사에서 PB ‘심플러스’ 아메리카노(500ml), 콩

나물, 감자칩, 보리차 등을 1000원에 선보였고, 국산콩 두부는 3490원, 태국산 계란 30구는 5890원, 서해안 꽃게는 100g당 990원에 판매했다. 여기에 완구와 침구류 등 비식품군 할인도 함께 내걸며 생활 전반의 가성비 수요를 겨냥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다이소의 성장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성다이소는 2025년 매출 4조563억 원, 영업 이익 4424억 원을 기록하며 9.8%의 영업 이익률을 냈다. 저가 상품도 충분히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형마트들도 초저가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구조형 초저가 PB 확대에, 홈플러스가 1000원 상품 중심의 행사형 할인에, 롯데마트가 PB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싸고 믿을 만한 상품”을 찾는 소비 흐름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은 같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서밋 타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청호나이스의 공기청정기 ‘서밋 타워(사진)’가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 독일에서 시작된 글로벌 디자인 시상식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매년 전 세계 60개국 이상 기업과 디자이너가 참가해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을 평가한다.



회사는 제품 성능도 함께 강조했다. ‘서밋 타워’는 83.2㎡(25평) 규모 공간에 적합한 공기청정기로, 입체 공기 순환 구조와 스마트 제어 기술을 결합해 빠르고 균일한 청정 성능을 구현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과 저소음 설계를 바탕으로 실사용 편의성도 고려했다.

이번에 수상한 ‘서밋 타워’는 청호나이스 시그니처 컬러인 클라우드 베이지와 토포 브라운을 적용해 다양한 인테리어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설계됐다. 입체감을 강조한 템바로드 디자인과 색상·밝기 조절이 가능한 무드등을 적용해 공간 연출 측면에서도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기역학 설계를 기반으로 상단부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공기를 순환시키는 ‘에어 리프트 모션’을 적용했다. 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 공기청정기의 단방향 송풍 방식과 달리 상단 토출부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바람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꿔 공간 전체를 보다 고르게 정화하도록 했다. AI 모드에서는 실내 공기질과 주변 환경을 분석해 절전, 쾌속, 취침 모드도 자동 전환된다.

중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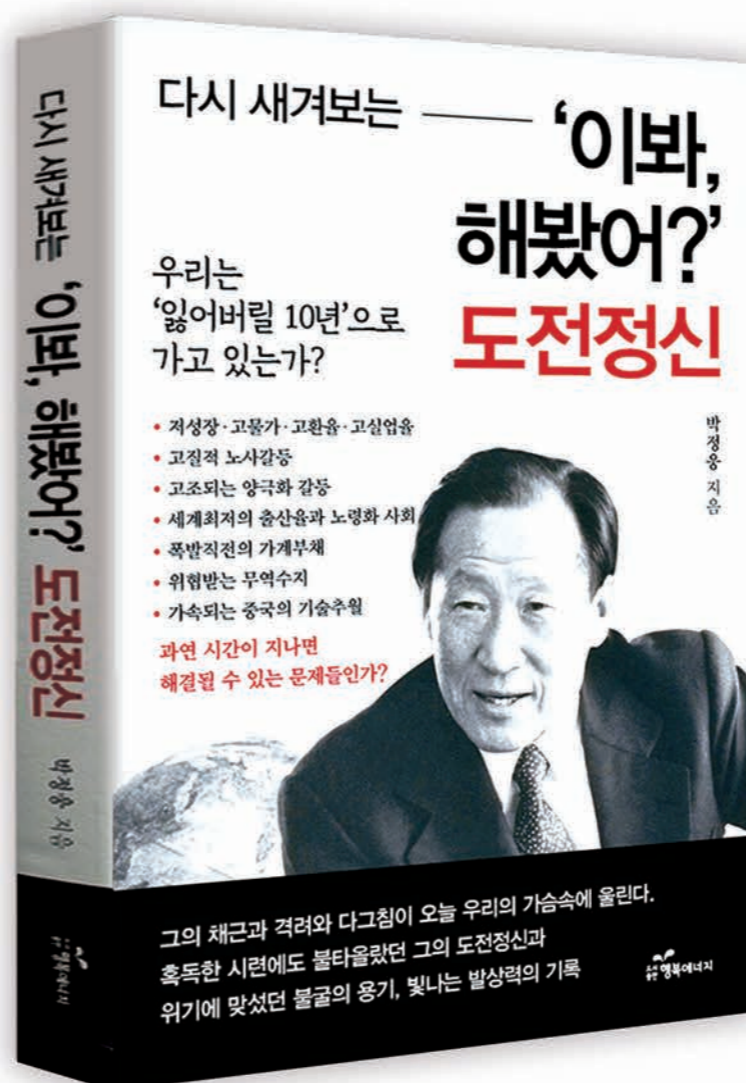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백 걸 할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팔십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를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성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성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절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찾았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